



주 제:	“겸손한 이의 기도”	“연중 제 30 주일 (다해)”	2007년 10월 28일
복음 묵상:	루카 18,9-14	집회 35,15 ~ -17.20-22 ~	2 티모 4,6-8.16-18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제대로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말은 기도하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당신을 따라 기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요한 14,13) 기도하고 구하며 간청하라”(마태 7,7)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겸손된 것이어야 하며(루카 18,9-14), 깨어 있는 마음(마르 13,33),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에 신뢰하는 마음(루카 11,5-13)과 순수한 지향으로 하느님께 합당한 기도를(마태 6,5-8) 바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할 때 내 기도의 크기는 수백만 평이 되어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도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가 나를 헐뜯고, 뒤에서 비난해도 내 기도의 크기가 한두 평이 아니고 수백만 평이 되기에 그 사람에게 웃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곤란, 번민, 아픔, 괴로움 따위에도 주저앉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나의 기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정 원순 토마스 아퀴노 수사 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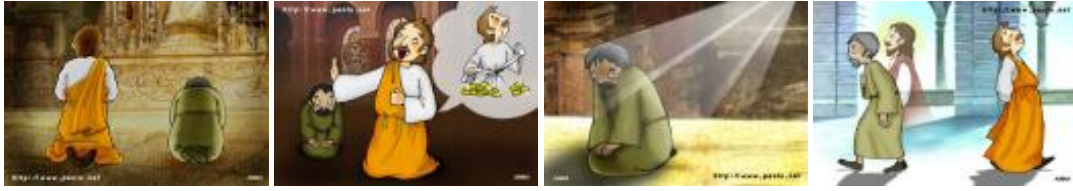
- **성탄 미사곡은 본당 웹 성가 연습방에 NWC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MP3 파일을 구하지 못해 CD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 성탄절이 **8 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주 미사후 성탄 미사곡 연습을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즐거운 성탄 전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지난 주 미사후 음년 성탄 미사곡을 **김인숙 세실리아 자매님의 지휘로** 첫연습이 있었습니다.
- **이흥진 데레사 자매님** 10/17 부터 일주일 여정으로 New York 으로 여행떠나시고, **전란이 막달레나 자매님** 친척 결혼식 참석차 역시 New York 으로 떠나셨습니다. 여행중에 주님함께 하시어 아무 탈없이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조 율리안나 자매님** 약 2 개월 반의 예정으로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여행중에 건강히 유쾌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유 비오 지휘자님과 유 요안나 자매님께서** 성지 순례(10/15-26)를 마치고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성지 순례중에 기도하여 주신 모든 가족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기도 요청

**“ 시몬 신부님 영명 축일을 맞아 주님의
넘치는 은총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명축일을 맞는 최 영균 시몬 신부님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은총내리시길 기도중에 청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 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 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1분 명상

(거리낌없는) 기도의 자유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로마서 7,24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는 자신의 무한전능하심에 초점을 두도록 새로운 습성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망했습니까? 그래도, “저는 망했습니다” 하는 대신 “예수님, 저의 풍부함이시여” (필리 3,8) 합시다? 두렵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저의 도움이시니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히브 13,6) 합시다. 궁지에 몰렸습니까? “저는 막막합니다” 대신 “예수님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이시니,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필리 4,7; 에페 2,14; 로마 8,28 참조) 합시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저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 저를 위한 고뇌로 고난 받으셨으니, 이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이끄실 것을 믿나이다” 합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can free me from this body under the power of death?”—Romans 7:24

우리가 제한의 언어를 버리고 무한의 말을 하도록 예수님께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느님의 높은 찬송으로 채워주시도록 빌며 (시편 149,6) “가장 훌륭하게” 그분을 찬미하는 말씀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코린 14,17).